

학교 밖 청소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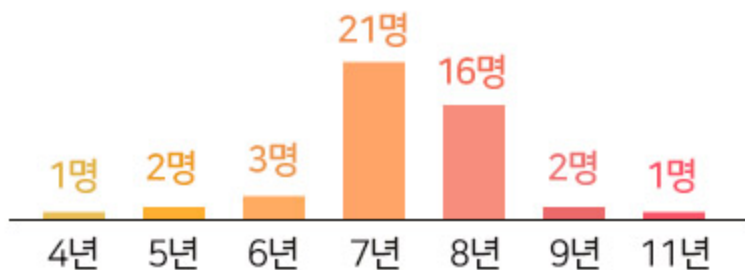
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
겪고 있을까?

학업을 중단하고 학교에서 일찍 벗어나
사회에 먼저 발걸음을 내딛은 청소년들.
이들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?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**학교 밖 청소년들**
6년간 추적조사 해 보았습니다.

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?

학업을 중단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청소년 47명



➡ 현재 20세 전후의 성인기 진입 시기에 있음

그 결과, 학교 밖 청소년들은
2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**대인관계**에
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

인간관계가 좁고,
서투른 편이에요.
먼저 잘 다가가지도
못해요.



취직을 해도
회사 사람들과
어울려 지내는데
어려움을 느껴요.



자꾸 애인에게
집착하게 되고, 빨리
결혼하고 싶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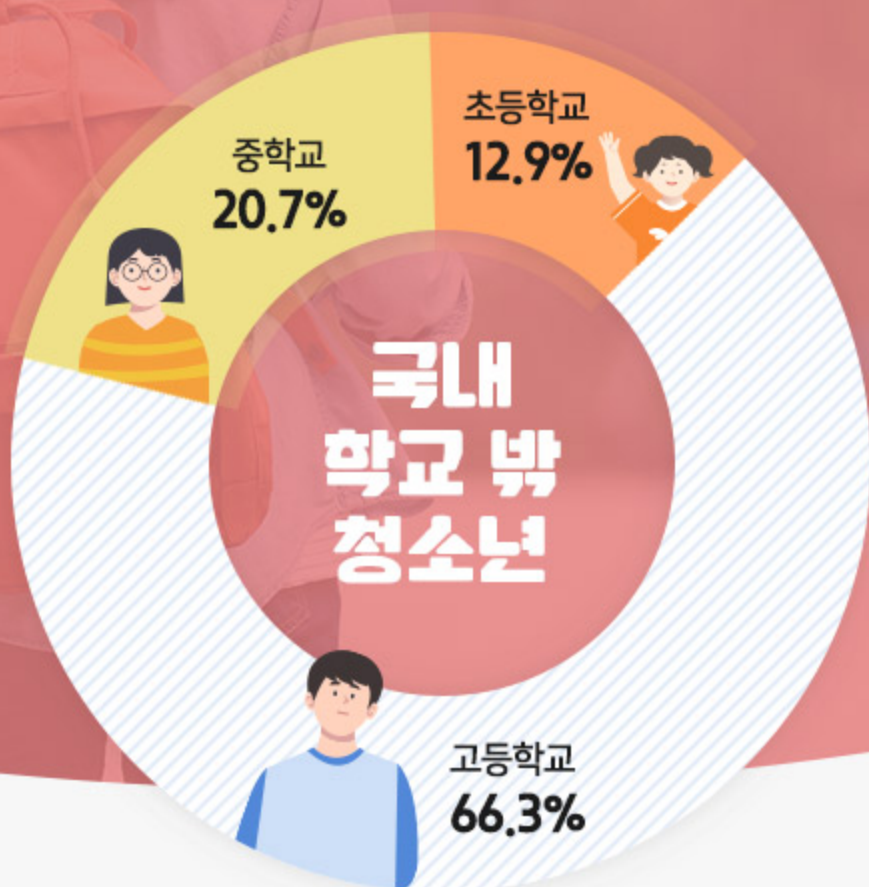


또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**취업의 실패**나
불안정한 일자리로 이어져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죠.

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**학교**는
인간관계 형성·유지 공간이자, 또래문화를 공유하고
대인관계기술을 배울 수 있는
인간관계의 장(長)으로서 의미가 큼데요.



학교를 벗어나 또래관계와 또래문화에 거리가 있던
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**사회적인 활동**이
비교적 **어렵게** 느껴질 수 있습니다.



국내 학교 밖 청소년은
2016년 기준 약 32만 명으로 추정되며, 이들 중
**초등학교 연령은 12.9%, 중학교 연령은 20.7%,
고등학교 연령은 66.3%일 것으로 보입니다.**

이들은 학교를 일찍 떠난 결과에 대해 양극화된 반응을 보였습니다.

빠른 사회경험으로 인해 도리어 대인 관계가 넓어지고
진로 찾기가 쉬웠다는 **긍정적 경로 그룹**과,
진로, 직업, 생계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
부정적 경로 그룹으로 나뉘었죠.



- 대인관계에 대한 마음이
넓어졌어요
-
- 실현 가능한 진로를
찾았어요
-
- 인간관계 대처기술이
개선됐어요



- 취업 준비 과정이
막막해요
-
- 학업을 이어나가기
어려워요
-
- 생계를 유지하기가
힘들어요

현재 19세 이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
진로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집중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,
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습니다.



오히려 취업 전선에 가까운 19세 이후의 청소년들이
진로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
필요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죠.

따라서 현재 마련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
시기별로 차별화를 둌으로써,
 청소년에게 보다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

학업 중단 직후 청소년

- 대인관계 형성 및
또래문화 공유의 기회 제공
- 학교 밖 지원센터와의
친근감 조성



성인기 진입단계 청소년

- 진로 및 취업 지원
프로그램 제공
- 학업 지원 등 구체적 지원
프로그램 개발

학교 밖 청소년들은 19세를 넘어서면서 **기대한 것과 현실의 격차**를 명확히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.

그들이 현실에 지지 않고, 사회에 오롯이 설 수 있도록
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.

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

[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: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]

장근영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· 선임연구위원)

서고운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· 부연구위원)

윤철경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· 선임연구위원)

이동훈(성균관대학교 교수)